

주간

Jeonnam Agricultural Information

전남농업

VOL. 232

2019년 5월 첫째주

주간 날씨정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저비용, 고소득 농업기술 정보 전남농기원 유산균 발효떡 가발에 박차
정책동향 및 홍보 전남도, 식용란 안전성 강화 나서
전남 시군 농정 동향 해남군, 농민수당 6월 전국 최초 지급
해외 농업정보 한국 파프리카의 일본 수입항구 현황



5월 가정의 달, 부모님 은혜에 감사드리며.....(카네이션)



전라
남도 농업기술원
Jeollanam-do Agricultural Research & Extension Services

목차 및 요약

1. 주간 날씨정보 6

- ▶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맑은 날이 많겠음
- ▶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 9 ~ 14도, 최고기온 : 20 ~ 24도)과 비슷하겠음
- ▶ 강수량은 평년(3 ~ 8mm)보다 적겠음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7

- ▶ 식량작물 : (예보) 모마름병, 뜸모
- ▶ 과수작물 : (예보) 과수화방병, 사과·배붉은별무늬병, 검은별무늬병 등

3. 농산물 관측정보 8

- ▶ 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 ▶ 무 생산 동향 및 가격전망
- ▶ 당근 생산 및 가격전망
- ▶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4. 주요 농축산물 가격정보 13

- ▶ 품목별 도소매 정보
- ▶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5. 농림축산식품 수출입 동향 17

- ▶ 우리 국화 ‘백마’ 사계절 일본에 선보인다

6. 저비용·고소득 농업기술정보 19

- ▶ 전남농기원, 유산균 발효떡 개발에 박차
- ▶ 전남농기원, 풀사료 생육불량시 추가 웃거름 권장
- ▶ 전남농기원,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방 철저 당부
- ▶ 전남농기원, 마늘·양파 생육후기 병해충 방제 ‘당부’
- ▶ 저온 피해 입은 배, 열매 숙는 요령 제시
- ▶ 사과 꽃따기 전 암수술 고사 먼저 확인하세요
- ▶ 농촌진흥청, 밀·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 예방 당부
- ▶ 봄철 잦은 강우로 배 검은별무늬병 등 방제 철저 당부
- ▶ 품질이 좋은 건초, 이렇게 만드세요
- ▶ ‘아리수 사과’ 거름 이렇게 주세요
- ▶ 생태계 교란 ‘가시박’ 지금 방제하세요
- ▶ 벼 즙 빨아먹는 먹노린재...예찰과 초기방제가 중요
- ▶ 풀 사료용 봄 호밀, 지금 수확하세요
- ▶ 초여름, 진드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
- ▶ 등검은말벌 방제 ‘여왕벌 활동기인 봄철이 적기’

7. 정책 동향 및 홍보안내 37

- ▶ 전남도, 식용란 안전성 강화 나서
- ▶ 전남도, 5월 전통주에 ‘사미인주’
- ▶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가속도
- ▶ 전남 우수 농수축산식품, 우체국쇼핑몰로 판매
- ▶ 전남도, 가축 방역시책 전국 최우수
- ▶ 전남농기원, 목이버섯 조리법과 재배기술 담은 책자
- ▶ 농촌진흥청, 농가 대상 소득연계 상담 지원 나서
- ▶ 전남도, 올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8. 전남 시군 농정 동향 45

- ▶ 담양군, 명품 ‘대숲맑은 담양 쌀’ 조기합쌀 모내기... 본격 영농철 시작
- ▶ 순천시,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료식 성황리에 마쳐
- ▶ 곡성군, 발효식품 제조 노하우 배우러 현장 견학
- ▶ 고흥군, 전국 지자체 최초「한우 송아지브랜드 출범식」개최
- ▶ 고흥군,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인하
- ▶ 해남군, 농민수당 6월 전국 최초 지급
- ▶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장 본점 오는 27일부터 토요일 연장 운영
- ▶ 영광군,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한 떡 가공업체 워크숍 성료
- ▶ 장성군,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하고 농사짓는다

9. 해외 농업정보 55

- ▶ 한국파프리카의 일본 수입항구 현황
- ▶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10. 농식품 빅데이터(가격) 정보제공 홈페이지 소개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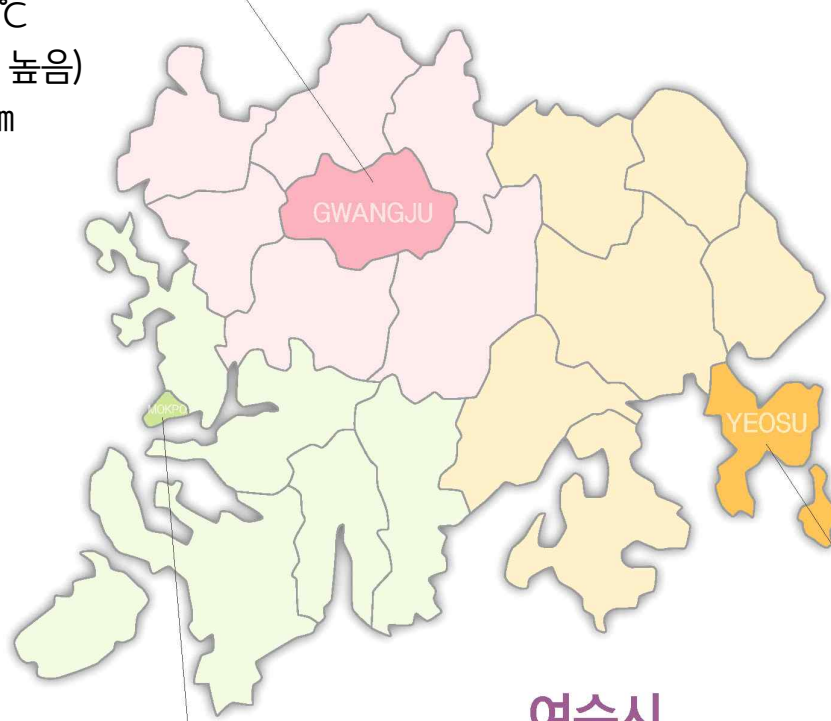
-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 ▶ 농촌진흥청 농사로
- ▶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

1

주간 날씨정보

광주광역시

- 평균기온 : 17.5℃
(평년대비 0.1℃ 높음)
- 최고기온 : 22.9℃
(평년대비 0.6℃ 낮음)
- 최저기온 : 12.1℃
(평년대비 0.1℃ 높음)
- 강 수 량 : 4.0mm



목포시

- 평균기온 : 16.1℃
(평년대비 0.3℃ 낮음)
- 최고기온 : 20.3℃
(평년대비 1.2℃ 낮음)
- 최저기온 : 11.9℃
(평년대비 0.4℃ 낮음)
- 강 수 량 : 3.6mm

여수시

- 평균기온 : 16.5℃
(평년대비 0.3℃ 낮음)
- 최고기온 : 20.1℃
(평년대비 0.5℃ 낮음)
- 최저기온 : 12.9℃
(평년대비 0.7℃ 낮음)
- 강 수 량 : 5.3mm

* 기온과 강수량은 평균이며, 평년은 1981-2010년까지 30년간 평균값임

* 자료 출처 : 날씨누리

2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



주요 병해충 발생상황

농촌진흥청에서 농작물 병해충 발생정보를 발표했으니 병해충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기 방제에 노력하여 주시고, 관계기관에서도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량작물	· 예 보	병	· 모마름병, 뚝모
		해충	· 애멸구
채소	· 예 보	병	· 양파·마늘 잎마름병, 노균병, 잣빛곰팡이병, 고추 역병·탄저병, 토마토 황화잎말림병, 흰가루병, 토마토반점위조병
		해충	· 고자리파리, 뿌리응애, 응애류, 총채벌레류, 가루이류, 진딧물류
과수작물	· 예 보	병	· 과수화상병, 참다래궤양병(Psa 3), 검은별무늬병, 사과·배붉은별무늬병, 점무늬낙엽병
		해충	· 나무좀, 진딧물류, 가루깍지벌레, 복숭아순나방, 복숭아씨살이좀벌,

※ 본 병해충 발생정보는 <http://nongsaro.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출처 : 농촌진흥청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노지봄배추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 2019년 노지봄배추 재배면적은 전년보다 14%감소하나, 평년보다는 8% 증가한 2,400ha로 예상된다.
- 단수는 전년보다 5% 감소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8,368kg/10a 으로 조사되었다.
- 노지 봄배추는 생육초기(3월 하순~4월 상순) 일시적 저온 현상으로 일부 피해를 보았으나,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편이다.
- 따라서 노지 봄배추생산량은 전년보다 18%감소하나, 평년보다는 7% 증가한 20만 1천 통으로 전망된다.
- 금년 노지봄배추 출하는 5월 중순부터 시작되겠으나, 시세 하락으로 인해 본격적인 출하는 6월로 지연되고, 고랭지철 대비 저장 출하비중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가격 전망 : 5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가락시장 상품 10kg(3포기)당 도매가격은 출하량증가로 전년(4,640원)과 평년(5,830원)보다 낮은 3,000원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감소로 전년(4,060원)보다 소폭 높겠으나, 평년(4,360원)보다는 여전히 낮을 전망이다.



무 생산 동향 및 가격전망

■ 생산 동향 : 시설 및 노지봄무 생산량 전년보다 감소 전망

- 2019년 시설봄무 재배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9%, 10% 감소한 138ha로 추정된다.
- 단수는 통계청 발표치인 작년보다 17% 감소하나, 생육기(2~3월) 일조량이 평년 수준 이상 지속되면서 평년보다는 6% 증가한 11,557kg/10a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시설봄무 생산량은 약 1만 6천 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41%, 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금년 시설봄무 출하는 겨울철 시세 약세로 조기 파종된 전년보다 일주일가량 늦어졌으나, 평년과는 비슷한 5월 상순경이 될 것으로 조사되었다.
- 노지봄무 생산량은 약 9만 톤으로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1%, 13%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5월 가격 전년 및 평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20,000원)과 평년(13,040원) 보다 낮겠으나, 9,500원/20kg(상품)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11,730원)보다 낮으나, 평년과는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당근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당근 생산량 전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 봄당근 재배(의향)면적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2%, 6% 증가한 913ha로 추정된다.
- 단수는 겨울철 한파 피해가 있었던 전년보다 13%증가하나, 평년과는 비슷한 3,206kg/10a으로 예상된다.
- 봄당근은 4월 저온으로 생육이 지연되었으나, 전반적인 작황은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따라서 봄당근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5%, 6% 많은 2만 9천 톤으로 전망된다.

■ 가격 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0,430원)보다 낮겠으나, 평년(26,940원)보다는 높은 2,8000원/20kg내외로 전망된다.
- 6월 도매가격은 출하량 증가로 전년(32,430원) 및 평년(26,550원)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양배추 생산 및 가격전망

■ 생산전망 : 봄양배추 생산량 작년보다 증가 전망

- 2019년 봄양배추 재배(의향)면적은 작년 및 평년보다 각각 7%, 9% 감소한 1,371ha로 추정된다.
- 단수는 3~4월의 저온 현상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14%, 11% 증가한 5,381kg/10a으로 예상된다.
- 따라서 봄양배추 생산량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5%, 1% 증가한 7만 4천 톤으로 전망된다.
- 금년 봄양배추는 겨울양배추 저장 출하가 마무리 되는 5월 상·중순에 본격적으로 출하될 예정이다.

■ 가격전망 : 5월 가격 전년보다 낮을 전망

- 5월 가격은 겨울양배추 저장 및 시설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4,210원) 및 평년(5,350원)보다 낮은 4,000원/8kg 내외로 전망된다.
- 6월 가격도 봄양배추 출하량 증가로 전년(3,390원)보다 낮은 약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출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품목별 도소매 정보

(2019. 05. 07. 기준 / 단위: 원)

식량작물

쌀(일반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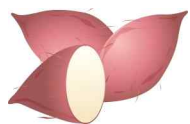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0kg	49,180	49,180	↑ 10.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380	44,520	39,960	↑ 23.1

콩(백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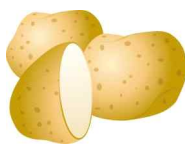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35kg	194,200	194,200	↑ 9.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89,450	178,200	154,600	↑ 25.6

고구마(밤)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kg	37,600	35,400	↓ 1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500	43,100	29,293	↑ 28.4

감자(수미)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0kg	45,200	46,800	↓ 47.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450	86,150	40,260	↑ 12.3

채소류

배추(월동)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kg	3,540	3,640	↓ 55.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340	8,000	6,318	↓ 44.0

양배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8kg	4,400	4,400	↓ 2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000	5,550	4,914	↓ 10.5

오이(다다기계통)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0개	41,000	36,000	↑ 33.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6,500	30,750	31,428	↑ 30.5

애호박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0개	13,800	12,400	↓ 1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750	16,050	12,470	↑ 10.7

채소류

건고추(화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60kg	1,147,200	1,147,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7,200	1,150,000	725,833	↑ 58.1

풋고추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kg	46,600	33,200	↑ 1.1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6,000	46,100	54,187	↓ 14.0

마늘(깐마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0kg	135,000	135,000	↓ 10.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35,000	150,000	150,000	↓ 10.0

양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0kg	16,800	16,600	↑ 122.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6,410	19,450	16,843	↓ 0.3

당근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0kg	34,200	37,000	↓ 5.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7,850	36,000	30,027	↑ 13.9

대파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kg	1,280	1,280	↓ 6.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75	1,375	1,592	↓ 19.6

파프리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5kg	20,200	18,800	↓ 25.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4,600	27,000	21,333	↓ 5.3

딸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kg	13,600	12,800	↓ 22.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5,300	17,550	14,450	↓ 5.9

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kg	22,000	21,200	↓ 16.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0,850	26,400	23,407	↓ 6.0

방울토마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5kg	20,400	20,600	↓ 15.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5,900	24,200	20,087	↑ 1.6

과일류

사과(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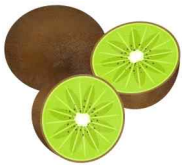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kg	40,400	38,800	↑ 4.0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9,250	38,850	40,439	↓ 0.1

배(신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5kg	51,400	49,000	↑ 108.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0,900	36,000	42,833	↑ 20.0

참다래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kg	31,200	32,000	↓ 9.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35,750	34,600	36,267	↓ 14.0

축산물(소매가)

쇠고기(한우등심)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0g	7,726	7,963	↓ 2.8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880	7,949	7,118	↑ 8.5

닭고기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kg	5,204	5,307	↑ 7.6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351	4,838	5,456	↓ 4.6

특용작물

참깨(백색)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30kg	499,200	499,200	↑ 0.2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496,200	498,000	525,000	↓ 4.9

느타리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kg	13,000	12,600	↓ 1.5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1,500	13,200	12,467	↑ 4.3

새송이버섯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2kg	7,200	6,800	↓ 0.7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7,300	7,250	7,943	↓ 9.4

돼지고기(삼겹살)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00g	1,950	2,007	↑ 8.3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1,752	1,801	1,907	↑ 2.3

계란(특란)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30개	5,251	5,345	↑ 20.9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5,125	4,343	5,773	↓ 9.0

축산물(소매가)

우유



전국 평균 도매가격(상품기준)			등락률(%)	
판매 단위	당일 (5/7)	1주일전 (4/30)	전년대비	
1L	2,627	2,622	↑	4.4
1개월전	1년전	일평년	평년대비	
2,620	2,516	2,541	↑	3.4

※ 1개월전, 1년전은 해당일자 기준 5일 이동평균 가격임
평년은 5년간(금년 제외) 해당일에 대한 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3년 평균값임

*자료 출처: aT KAMIS(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가축 및 축산물 산지시세

(2019. 05. 07. 기준 / 단위: 원)

한우(천원/600kg)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5,535	5,517	5,655	↑ 0.3	↓ 2.1
거세	6,771	6,743	7,041	↑ 0.4	↑ 3.8

한우송아지(천원/6~7월)

구분	금주 가격	전주 가격	1년전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암	3,316	3,256	3,248	↑ 1.8	↑ 2.1
수	4,030	3,917	4,047	↑ 2.9	↓ 0.4

육우(천원/60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314	3,390	3,51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2.2	↓ 5.8

젖소수송아지(천원/7일령)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435	442	23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6	↑ 82.8

돼지(천원/110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379	368	40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3	↑ 7.1

육계(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450	1,240	1,172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16.9	↑ 3.8

계란(원/특란10개)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1,010	1,072	758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 5.8	↑ 33.2

오리(원/kg)

	금주가격	전주가격	1년전
	2,200	2,200	2,155
	등락률(%)	전주대비	전년대비
		0.0	↑ 2.1

*자료 출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우리 국화 '백마' 사계절 일본에 선보인다

- 연중 생산 체계 구축... 올해 14만 송이 수출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국화 '백마' 품종의 생산 체계 구축으로 사계절 일본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 우리 국화 '백마'

- 일본은 연간 약 20억 송이의 국화를 소비하고, 약 3억 송이를 수입하는 큰 시장이다. 그러나 난방비 부담으로 겨울철 생산이 어려웠던 '백마'는 주로 여름철(8월~9월)에만 수출했다.
- 일본은 연간 약 20억 송이의 국화를 소비하고, 약 3억 송이를 수입하는 큰 시장이다. 그러나 난방비 부담으로 겨울철 생산이 어려웠던 '백마'는 주로 여름철(8월~9월)에만 수출했다.
- 2004년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했으며, 꽃이 풍성한 대형 품종이다. 꺾은 꽃(절화) 수명도 한 달 정도로 길어 국화 종주국인 일본에서 좋은 평을 받고 있다.
- 이에 농촌진흥청은 중국 하이난에 '백마' 생산기지를 만들어 겨울철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는 연중 생산 체계를 갖췄다.

- 연구진은 '백마'의 중국품종보호권 전용 실시 업체인 주식회사 로즈피아와 2015년 12월부터 3년 간 중국 현지에서 시범 재배했다. 초기에는 현지 생산자의 기술과 품종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상품성 좋은 꽃 생산이 어려웠으나 반복적인 기술 지도로 극복할 수 있었다. 꽃은 하이난에서, 묘는 쿤밍에서 생산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안정화한 결과다.
- 이를 통해 지난 2월, 일본에 1만 송이 수출에 이어 4월까지 모두 14만 송이를 실어 보냈다. 지난 3월에는 일본의 국화 수요가 가장 많은 춘분절과 맞물리면서 수입 관계자, 장례업체 등 다양한 소비층의 평가를 받았다. 이들은 '순백색에 꽃이 크고 꽃잎이 많으며, 꺾은 꽃 수명도 다른 품종의 2배 정도'인 점을 높이 사 성수기마다 받아보길 원했다.
- 농촌진흥청은 올 5월과 10월~12월에는 중국, 6~9월에는 국내 생산 기술을 지원하며, 이후에도 꾸준히 중국 내 생산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산업계에 기술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신학기 원예작물부장은 "'백마' 품종의 연중 공급으로 국산 국화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과론, 국내 생산 물량의 일본 수출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앞으로 우리 화훼 품종 수출을 늘려 로열티(사용료)를 절감하고 국가 수익 창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전남농기원, 유산균 발효떡 개발에 박차

- 도내 떡 전문 생산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에 나서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쌀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고유의 발효떡을 개발하기 위해 도내 떡 전문 생산업체와 함께 제품 개발에 나섰다 29일 밝혔다.
- 기정떡 또는 증편이라 불리는 발효떡은, 습식제분(가공 전 물에 담근 후 제분 과정에서 목적성분을 분리시키는 방법)한 쌀가루에 탁주를 넣어 발효시키면 고유의 발효냄새를 갖는다. 이러한 발효취는 중장년층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만 신세대 소비자에게는 선호도가 떨어진다는 이유로 다양한 계층이 소비할 수 있는 제품개발이 꾸준히 요구되어 왔다.
- 이에 전남농기원은 백미와 흑미 발효에 적합한 유산균을 선발하였고, 선발된 유산균을 활용한 제품개발을 위해 화순군 소재 (주)사평기정떡과 함께 다양한 아침대용 기정떡 제품 개발을 추진 중이다.
- 한편 2018년도 가공용 쌀 소비량은 75만 5,000여 톤으로 6.8% 증가하였으며 특히, 1인가구와 간편식을 선호하는 소비층의 증가로 떡과 국수 등에 사용된 쌀 소비량이 40% 이상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유석 연구사는 “남녀노소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풍미와 식감이 개선된 유산균 발효떡을 개발하고 현장에 보급하여 전남 쌀 소비 확대에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풀사료 생육불량시 추가 웃거름 권장

- 요소비료 ha당 5포 가량 추가 살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 축산연구소는 사료작물의 안정적인 수확량 확보를 위해 풀사료 생육 불량시 추가로 웃거름을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올해 겨울 사료작물 생육 상황은 대체로 양호하였으나, 간척지 재배 풀사료의 경우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고, 가까운 재배지 간에도 2배 이상 생육 차이가 나기도 하였다.
- 보통 겨울 사료작물 가을 파종 시 웃거름은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 사이 1회 실시하지만, 생육이 불량한 경우 2차 웃거름을 하는 것이 수확량 증가에 도움이 된다.
- 또한 봄 파종한 경우 전반적으로 생육이 느리기 때문에 추가 웃거름을 주는 것이 생육 촉진에 좋다.
- 2차 웃거름은 4월 하순에서 5월 상순경 ha당 요소 비료(20kg) 5포 정도를 살포하거나, 자연순환센터 등을 통해 농업기술센터에서 시비 처방을 받아 액비를 뿌리면 된다.
- 액비는 작물의 잎과 뿌리에서 바로 흡수할 수 있어 이용 효율이 높고, 건조한 조건에서 수분 공급 효과도 있기 때문에 유용하다.
- 하지만 후작으로 일반 벼를 재배할 시 필요 이상으로 웃거름을 많이 하게 되면 도복 발생 우려가 있고, 쌀 맛과 품질에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맥류 붉은곰팡이병 예방 철저 당부

- 이삭 나온 후 강우 지속되면 많이 발생 -

- 전남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보리, 밀 등 맥류 꽃이 한창피고 있는 요즈음 잦은 강우에 따른 맥류에 큰 피해를 주는 붉은곰팡이병 예방을 위해 철저한 포장관리를 당부 하였다.
- 붉은곰팡이병이 발생하면 여물지 않아 수량을 감소시키는 피해를 주는데, 맥류의 꽃이 피는 시기에 평균기온이 15℃이상이고, 3일 이상 비가 지속되면 많이 발생한다.
- 이 병에 감염되면 초기에는 이삭이 갈색이었다가 붉은색으로 변하며, 점차 이삭 표면에 분홍색 곰팡이가 생긴다. 결국 병든 이삭은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며, 병원균의 독소가 남아있어 사람이나 가축이 먹었을 때 복통 또는 구토를 일으키게 된다.
- 붉은곰팡이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포장관리가 필요하다. 먼저 보리밭이 너무 습하지 않게 배수로를 깊게 파서 물이 잘 빠지도록 해야 한다.
- 또한 개화기 잦은 강우가 예상될 경우에는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캡탄 수화제 등 적용약제를 안전사용 기준에 따라 살포해야 한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이진희 연구사는 “병 발생과 온도, 습도 등 발병환경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제법을 개발하여 안정생산에 기여 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전남남도농업기술원

■ 전남농기원, 마늘·양파 생육후기 병해충 방제 ‘당부’

- 최근 잦은 비로 인해 노균병·무름병 발생 우려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최근 잦은 강우가 지속됨에 따라 마늘·양파 노균병과 무름병 발병이 예상되므로 방제를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 노균병은 15℃ 정도의 기온에서 식물체 표면 습도 95% 이상, 물방울 맺힘이 2시간 이상일 때 균 침입이 용이해져 발병하게 된다.
- 특히 양파 주산지역인 무안의 지난 한 주간 기상현황은 평균기온 14℃, 평균습도는 85%에 육박하고 비가 오는 날이 잦아 노균병과 무름병 발병이 우려된다.
- 노균병에 감염되면 잎이 연두색으로 변하면서 아래로 처지는 현상과 함께 전체가 위축되는 증상을 보이면서 고사한다. 그 영향으로 정상적인 양파 구 비대가 어려워 크기가 작게 되고, 심할 경우에는 수확이 거의 어렵게 된다.
- 무름병은 구 비대기에 접어들면서 지제부로부터 발병이 시작되고 병에 걸리게 되면 부패하여 냄새가 나며 잎이 마르고 쓰러짐 현상이 발생한다. 그리고 비가 올 때 수확하면 저장 중에도 발병할 수 있으니 수확 시기에 특히 신경 써야 한다.
- 병 발병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비가 온 뒤에 적용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맞추어 뿌려주고, 수확 후에는 줄기나 잎을 소각하거나 땅에 묻어야 한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 저온 피해 입은 배, 열매 숙는 요령 제시

- 농촌진흥청, 꽃눈 피해 정도 따라 숙는 시기·양 조절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여러 차례 발생한 저온 현상으로 일부 지역에서 배 꽃눈이 얼어 죽는 피해가 나타났으며, 열매숙기에 특히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 배는 보통 꽃이 활짝 핀 후 약 30일 만에 열매를 숙는데, 저온 피해 정도에 따라 시기와 양을 달리해야 한다.
- 꽃눈이 피해를 보았다면 열매 숙는(적과) 시기를 늦춰 최종적으로 남기는 열매 개수를 되도록 많이 확보한다.
- 열매가 부족하게 달린 경우에는 나무 자람새 조절을 위해 상태가 좋지 않더라도 열매를 그대로 뒀야 한다.
- 어느 정도 열매가 달린 경우에는 상태가 불량한 것을 중심으로 열매를 솎아낸다.
- 열매가 충분히 달린 경우에는 판매 전략을 고려해 열매를 숙는 방법을 선택한다.
- 먼저, 큰 배를 생산하려면 열매 개수와 비교해 이파리 개수 비율을 늘린다. 선물용이나 제수용으로 사용하는 600g 이상의 신고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이파리 40~50개당 열매 1개가 달리도록 한다.
- 또, 과실 크기가 크고 모양이 좋으며 가지와 과실을 연결하는 과경이 길고 굵은 열매는 남겨 둔다. 열매숙기는 1~2차로 나눠 실시하는데,

- 꽃이 떨어진 지 약 1~2주 후 1차로 예비 숙기를 하고 약 1달 뒤 본격적으로 숙아낸다.
- 최근 과일 소비는 먹기 편한 중간 크기, 또는 작은 크기 위주로 바뀌고 있다. 농가에서는 이런 경향에 맞춰 중소과 배 생산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이파리 10개당 과실 1개 정도 비율로 숙아낸 황금배

- 요즈음의 과일 소비 경향에 부합하는 황금배 품종으로 중소과를 생산하려면 이파리 10개당 1개 정도의 과실이 달리도록 한다.

- 실제 이 방법을 적용해 열매를 숙은 결과, 150~350g의 과실이 약 75.6%를 차지해 중소과 생산율이 가장 높고 품질도 좋았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배연구소 강삼석 소장은 "올바른 열매숙기 요령을 익히면 저온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사과 꽃따기 전 암수술 고사 먼저 확인하세요

- 저온 피해 입은 경우 중심화 대신 측화에 인공수분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올해 사과 개화가 빠른 지역의 과수원에서는 반드시 사과 꽃 암수술의 고사(죽음) 여부를 확인한 뒤 꽃따기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개화가 빠른 지역의 사과 꽃은 저온 피해를 입기 쉬운데 피해를 입은 경우 겹보기에는 정상이나 암수술이 고사된 경우가 있다. 발아 후 기온이 높은 평지나 산간도 꽃이 빨리 피는 곳은 피해가 많다.
- 사과 꽃을 일찍 딸수록 열매숙기에 드는 노력도 줄고 열매도 커진다. 그러나 고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경우, 수정이 되지 않거나 수정 상태가 좋지 않아 열매가 열리지 않거나 기형과가 될 수 있다.
- 저온 피해를 입었는지 확인할 때는 반드시 꽃의 배주(밑씨)를 횡단면으로 잘라야 한다.
- 사과 꽃의 중심화가 저온 피해를 입었다면 측화(꽃대 끝이 아닌 가지 옆에 달린 꽃)에 인공수분하고, 피해가 심해 결실량이 부족하면 늦게 피는 꽃도 수정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박교선 사과연구소장은 "저온 피해가 잦은 과수원은 꽃따기보다는 열매숙기 위주로 관리해야 안정적인 결실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밀·보리 붉은곰팡이병 피해 예방 당부

- 4월 하순부터 연속 강우 발생... 사전 방제 필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밀, 보리의 이삭이 나오는 시기인 4월 하순경부터 3일 이상 연속으로 비가 내려 붉은곰팡이병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가능한 사전에 방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 붉은곰팡이병은 곡류에 붉은곰팡이가 감염돼 발생하는 병으로, 곡류 수량 감소로 이어진다.
- 출수기(밀, 보리, 벼 등에서 이삭이 나오는 시기)와 유숙기(출수 후 개화수정이 완료돼 알곡이 차기 시작하는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4월 중하순부터 5월 중 기온이 18~20℃, 3일 연속으로 비가 내리고, 상대습도 80% 이상인 날이 계속될 때 감염되기 쉽다.
- 발생한 독소는 제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인균인 붉은곰팡이 감염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 비가 그친 후에 디페노코나졸·프로피코나졸 유제, 캡탄 수화제 등 밀, 보리에 등록된 약제를 안전사용기준에 따라 뿌려준다.
- 올해 방제 적기는 4월 24일~5월 10일이며, 강우 직후 1~3회 뿌린다.
- 또한 재배지 논 포장의 습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기존의 배수로로 잘 마무리해 물 빠짐이 좋게 해야 한다.
- 붉은곰팡이는 수확 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맑고 건조한 날 수확하며, 거둔 즉시 건조한다. 잘 말린 후에는 손상, 미성숙, 병든 낱알을 골라낸 후 깨끗하고 바람이 잘 통하는 저장고에 보관한다.
- 맥류 붉은곰팡이병에 감염돼 병든 이삭률은 2011년 14.4%에서 2017년 0.5%로 줄었다가 지난해 16.2%까지 늘어 주의가 필요하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봄철 잦은 강우로 배 검은별무늬병 등 방제 철저 당부

- 과수 검은별무늬병, 붉은별무늬병, 양파 노균병, 핵과류 세균병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4월 들어 비가 4~7일 연속으로 내린 지역이 많아 배 검은별무늬병, 사과·배 붉은별무늬병, 양파 노균병, 핵과류 세균병 등 봄철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의 급격한 확산이 예상돼 농업인들에게 이들 병에 대한 철저한 방제를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http://ncpms.rda.go.kr>) 예측정보를 보면, 지역에 따라 검은별무늬병과 붉은별무늬병의 감염 위험이 높아 비가 그친 사이에 반드시 침투이행성 약제로 방제가 필요하다.
- 양파 노균병과 핵과류 세균병도 이번 비로 인해 급격한 확산이 우려되므로 침투이행성 살균제로 반드시 방제가 필요하다.
- 국립농업과학원 작물보호과 김현란 과장은 "5월 상순까지 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가농작물병해충관리시스템, 농촌진흥청 농사포털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등 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적극 활용해 병해충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적기에 적용약제로 방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품질이 좋은 건초, 이렇게 만드세요

- 동계 사료작물 수확... 수분 함량 20% 이하로 만들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국내 동계 사료작물 수확 시기인 5월을 맞아 제조 시간을 줄이면서 양질의 건초를 만드는 방법을 제시했다.
- 국립축산과학원은 식물체에 상처를 내어 수분 증발을 촉진시키는 모우어 컨디셔너(풀을 벨 때, 식물체에 압착이나 타격으로 흠집을 내고 수분 증발을 촉진하는 장비)와 건초를 뒤집어주는 반전기(골고루 수분이 증발 되도록 아래와 위를 뒤집어 주는 장비)를 활용해 건초 제조 시간을 단축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
- 이슬이 걷히는 오전 9시 이후 모우어 컨디셔너로 수확한다. 일기에 따라 반나절이나 하루 정도 그대로 뒤 햇빛과 바람으로 수분을 날려 보낸다. 모우어 컨디셔너로 수확할 경우, 3~4일이면 건초 생산이 가능해 일반 예취기를 사용할 때보다 1일 정도 단축할 수 있다.
- 또한 풀사료를 넓게 펼치고 아래와 위를 뒤집어 주는 반전 작업을 한다. 반전 작업은 수확 다음 날부터 3일간 1일 1회 반전기(테더)로 하면 된다. 생초량(40톤 이상)이 많을 때는 반전 횟수를 1일 2회로 늘려 건조를 촉진시킬 수 있다. 뒤집기를 하지 않으면 풀더미의 상단부(햇빛을 받는 부분)와 하단부의 수분함량은 20% 이상 차이를 보인다.
- 국내 풀사료 소요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풀사료를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양질의 건초를 생산하는 등 수입산 풀사료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 농촌진흥청 초지사료과 김원호 과장은 "품질이 좋은 건초를 생산하면 국내산 풀사료의 이용이 늘어나 풀사료 자급률이 높아질 것이다"라며 농가의 관심을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아리수 사과’ 거름 이렇게 주세요

- 표준 거름량 바탕으로 토양 상태와 나무 자람새 고려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우리 품종 '아리수' 사과나무의 양분 흡수량을 바탕으로 어린 시기(유목기) 거름 주는 요령을 제시했다.
- 사과나무는 품종마다 양분 흡수 특성이 조금씩 다른데, 유목기(재식 후 5년 이내)에 거름을 알맞게 줘야 다 자란 뒤(성목기)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다.
- 알맞은 거름은 나무 생장에 도움을 주지만, 지나치게 거름을 많이 줄 경우 나무 자람새가 안정되지 않고 생리장해의 원인이 된다.
-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새 품종인 '아리수'의 농가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 그 결과, 아리수/M.9 품종의 10아르(a)당 표준 거름량은 심은 지 1년 차는 질소 1.588kg, 인산 0.240kg, 칼륨 1.443kg, 2년 차는 질소 4.631kg, 인산 0.922kg, 칼륨 3.979kg, 3년 차는 질소 8.123kg, 인산 1.780kg, 칼륨은 7.850kg 정도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질소-인산-칼륨(20-4-18) 복합비료의 경우, 3년 차 묘목 과원을 기준으로 10아르당 한 해 총 40kg을 주면 질소 8kg, 인산 1.6kg, 칼륨 7.2kg만큼의 양분 공급이 가능하다.
- 단, 표준 거름량을 참고하되 토양 상태와 나무 자람새를 종합적으로 관찰해 실제 거름량을 결정하고 거름 주는 방법도 판단해야 한다.
- 또한, 퇴비를 줄 경우에는 퇴비 성분의 혼합 비율이나 부숙(발효)정도에 따라 양을 조절해야 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생태계 교란 ‘가시박’ 지금 방제하세요

- 가시박 어릴때 제거해야 확산 막아... 농경지 유입 사전 차단이 중요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잡초 가시박이 농경지로 유입돼 농작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적극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가시박어린식물가시박(*Sicyos angulatus*)은 북아메리카가 원산으로 1년에 8m가량 자라는 잡초다. 3~4개의 갈라진 덩굴손으로 다른 물체를 감아 기어오르는 특성 때문에 주변 식물은 햇볕이 차단돼 말라 죽는다. 열매에는 날카롭고 가느다란 가시가 촘촘하게 붙어 있어 사람과 가축에 피부염을 유발하기도 한다.
- 2015년 농촌진흥청 조사에 따르면, 경기 안성의 인삼밭과 옥수수밭, 경북 안동의 논에 가시박이 침입한 사례가 있어 확산 예방이 중요하다.
- 하천변이나 제방에 발생한 가시박은 5월 초순께 어릴 때 낫 등으로 쳐내야 확산을 막을 수 있다.
- 이 시기를 놓치면 7월 초 꽃 피기 전이나 8월 말 종자가 익기 전에 가시박 줄기의 밑둥치를 낫으로 잘라내야 종자 생성을 막아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 가시박은 한 번 없앴어도 6월 말까지 계속 생기기 때문에 세심한 관찰이 필요하며, 매년 없애줘야 한다.
- 농경지의 경우, 가시박이 발생하기 전 리뉴론 수화제, 시마진 수화제 등 제초제를 뿌린다. 과수원에서는 초기에 글루포시네이트암모늄액제, 글리포세이트이소프로필아민액제 등을 뿌려 방제한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벼 즙 빨아먹는 먹노린재...예찰과 초기방제가 중요

- 전남도내 먹노린재 월동성충 생존율 72.8% 조사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친환경 및 조기재배 벼에 가장 큰 피해를 주는 해충인 벼 먹노린재의 월동 후 생존율이 72.8%로 조사되어 적극적인 예찰과 초기방제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 먹노린재는 연 1회 발생하는 해충으로 낙엽이나 잡초 밑에서 성충으로 겨울을 지내다가 6월 상·중순경 논으로 이동하여 벼의 줄기에서 즙액을 빨아먹어 생육을 억제하고 이삭에 반점미를 유발하는 등 수량감소와 상품성을 떨어뜨리는 치명적인 피해를 주고 9월 중·하순경에 월동장소로 이동한다.
- 지금까지 알려진 방제방법은 이앙 후 본논으로 들어가는 6월 하순경에 논물을 빼고 논두렁과 가장자리 위주로 정밀방제를 하는 것인데, 이 때는 벼의 줄기수가 많아지는 시기이므로 먹노린재를 방제하지 않으면, 해충이 숨을 공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빠르게 증식하여 개체수가 늘어나므로 방제효율이 크게 떨어진다.
- 이에 전남농기원은 먹노린재의 생리생태를 이용한 효율적인 방제방법을 개발하고자 순천, 곡성 등 전남도내 먹노린재 다발생 8개 지역에서 월동장소, 월동후 생존율, 먹이선호성 등 생태특성을 조사하였다.



- 조사 결과 먹노린재는 논두렁의 돌 밑이나 논과 인접한 산기슭의 퇴적 낙엽 속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24마리 중 167마리가 생존해 72.8%의 생존율을 보였다.
- 조사 결과 먹노린재는 논두렁의 돌 밑이나 논과 인접한 산기슭의 퇴적 낙엽 속에서 서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224마리 중 167마리가 생존해 72.8%의 생존율을 보였다.
- 그리고, 벼, 보리, 밀, 옥수수 등 9종의 식물을 이용 먹이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벼와 옥수수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한, 발육단계별 온도반응시험을 수행한 결과 발육최적온도는 27℃이며, 알에서 성충이 되는 데에는 39.4일이 소요되었다. 이를 근거로 온도와 발육속도와의 관계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결과 먹노린재의 발육영점온도는 17.9℃, 유효적산온도는 380.2일도였다. 이런 데이터를 이용하여 먹노린재 월동성충의 활동 시작시점은 일평균기온이 18℃가 되는 5월 10일경으로 예측할 수 있다.
- 전남농업기술원 친환경농업연구소 최덕수 연구사는“먹노린재의 월동장소, 선호하는 먹이식물 및 선호하는 불빛 등 생리생태적 습성을 이용한 유인포획장치를 개발하여 먹노린재가 본논으로 들어가기 전에 방제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풀 사료용 봄 호밀, 지금 수확하세요

- 이삭 나오고 10일 내에 수확해야, 5월1일~10일이 적기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봄 호밀 수확기를 맞아 품질 좋은 풀사료를 얻기 위해서는 이삭이 나오고 10일 이내에 수확할 것을 당부했다.
- 농촌진흥청에서 육성·보급하고 있는 '곡우' 호밀은 보통 절기 상 곡우(穀雨)¹⁾ 무렵에 이삭이 나오는데, 파종시기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올해는 4월 20일~4월 30일쯤으로 예상한다.
- 품질 좋은 호밀 풀 사료를 얻을 수 있는 수확 시기는, 이삭이 나오고 10일 이내인 5월 1일~5월 10일이 적당하다.
- 일반적으로 농가에서는 수량을 많이 얻기 위해 이삭이 나온 뒤 20일이 지나서 수확한다. 하지만 식물체의 단백질 함량이 10% 이하로 줄어들고, 줄기와 잎이 익세고 질겨져 사료로서 가치는 떨어진다.
- 호밀의 품질을 고려하면 이삭이 나오는 시기에 수확하는 것이 좋지만 생육이 덜 돼 식물체 수량이 낮다. 따라서 이삭이 나오고 10일 이내에 수확하는 것이 좋다.
-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중부작물과 김병주 과장은 "곡우 호밀은 수확시기가 빠르고 사료가치도 높아 논 이모작에 아주 적합한 작물이다."라며, "앞으로 농업인들이 국산 종자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종자 생산을 확대할 것이며,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호밀 품종 개발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초여름, 진드기 피해를 줄이는 방법

- 말 방목 시, 진드기 매개 원충성 질병 예방 철저히 해야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진드기를 매개로 말에서 발생하는 질병을 소개하고 예방법을 제시했다.
- 최근 지구 온난화로 방목지의 진드기 발생이 크게 늘고 있어 말을 방목 할 때 진드기 매개 원충성 질병의 발생과 피해가 예상된다.
- 국내 초지와 산지에 발생하는 주요 야생 진드기인 '작은소참진드기'는 사람과 동물에 다양한 세균, 바이러스, 원충 등 병원체를 전파하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다.
- 진드기가 방목 중인 가축의 피를 빨면 진드기 내 원충(단세포동물)이 가축의 혈관으로 이동, 적혈구 안에 기생하게 된다.
- 이런 경우 적혈구를 파괴하는 원충성 질병인 바베시아증, 타일레리아증, 아나플라스마증 등을 유발해 농가 피해가 우려된다.
- 특히, 성장기에 있는 어린 망아지는 적혈구를 파괴하는 진드기 매개 원충에 감염될 경우 체내에 산소를 공급하는 적혈구의 양이 줄어 성장 저하나 폐사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 또한 여름철에 진드기 예방을 하지 않을 경우, 진드기 매개 질병으로 체력이 약해져 열사병으로 폐사하는 사례도 발생한다.
- 진드기 매개 원충성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외부기생충 구제제와 살충제를 살포해야 한다(진드기 발생 시기인 5월~9월까지 15일 간격으로 실시).

- 외부기생충 구제제의 경우 방목 중인 말의 특성상 주사제를 사용하기 어려우므로 피부 흡수가 가능한 약품을 선택해 말의 등 부위에 주기적으로 흘부려 주는 것이 좋다.
- 이와 함께 유해성이 적은 피레스린계(국화과 식물에서 추출된 천연 살충성분인 피레스린을 이용한 살충제)를 적정 농도로 희석해 말의 표면에 흘부린다면 단기에 진드기를 제거할 수 있다.
- 말을 방목하기 전 수의사 처방을 받아 원충성 질병 치료제인 부파바콘 성분 약제와 옥시테트라사이클린 항생제를 주사한 후 방목하는 방법도 있다(원충성 질병에 의한 증상이 심해질 경우 치료제로 사용).
- 운동성과 활력이 저하되거나, 잘 먹지 않는 등 진드기 매개 질병이 의심되는 말이 생길 경우 방목을 중지하고 부파바콘 약제 치료와 더불어 철분제와 영양제를 주사해 증상을 개선시킨 후 방목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농촌진흥청 난지축산연구소 양병철 소장은 "진드기가 많은 초여름부터 가을까지 진드기 매개 질병 예방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으며 "스트레스나 다른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출처 : 농촌진흥청

■ 등검은말벌 방제 ‘여왕벌 활동기인 봄철이 적기’

- 전국 동시 방제해야 효과... 유인트랩 등 활용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등검은말벌의 활동이 가장 왕성한 가을철 꿀벌 피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 월동 여왕벌의 활동기인 봄철에 전국에서 동시 방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등검은말벌은 외래 해충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2003년 부산에서 처음 확인된 후 전국으로 확산돼 자연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양봉산업에 피해를 입히고 있다. 또한 해마다 3~4명의 인명사고가 발생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 등검은말벌은 4~6월에 여왕벌이 단독으로 활동하는 특성이 있어 이 시기 등검은말벌의 여왕벌을 포획하면 가을철 수 천 마리의 일벌과 벌집을 제거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 봄철 여왕벌은 주로 양봉장 인근의 야산에서 서식하기 때문에 유인트랩을 양봉장 인근 야산과 양봉장 주변에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유인제를 보충해 관리하면 효과적이다.
- 지역별로 방제를 할 경우, 방제하지 않은 지역의 등검은말벌이 방제가 끝난 지역으로 다시 유입될 수 있어 전국에서 동시 방제를 해야 한다.
- 농촌진흥청 잠사양봉소재과를 비롯해 양봉관련 7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양봉산업발전협의회에서는 양봉산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말벌 봄철 방제에 대한 상호 정보 공유와 방제 추진 등 협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말벌퇴치장비 지원 사업, 양봉농협의 말벌 방제용 끈끈이 트랩 지원 등 농가를 위한 다각도 지원이 추진되고 있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식용란 안전성 강화 나서

-8월까지 산란계농장 살충제 잔류검사...진드기 방제약품 사용 지도도-

- 전라남도는 안전한 식용란을 공급하기 위해 산란계 전체 농장 131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안전성 일제검사를 한다고 2일 밝혔다.
- 이번 일제검사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살충제뿐만 아니라 동물용의약품 잔류검사 및 살모넬라 검사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 전체 농장을 검사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직접 방문해 식용란을 채취한다. 친환경축산물 인증농가는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일반농가는 동물위생시험소에서 잔류농약 검사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 특히 올해 식용란의 농약 잔류검사는 기존 살충제 검사항목 33종에 ‘플루랄라너’ 성분을 추가해 34종에 대해서 실시한다.
- 또한 농장 방문 시 동물용 의약품과 진드기 방제약품에 대해 안전한 사용 등을 지도해 효과적으로 진드기를 방제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 검결과 부적합 식용란이 검출되면 농장 정보와 난각 표시사항을 공개하고,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출하 정지한 뒤 회수 폐기한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5월 전통주에 ‘사미인주’

-친환경 찹쌀과 전통누룩으로 빚은 프리미엄 막걸라-

- 전라남도는 5월을 대표하는 남도 전통주로 장성 ‘찾아가는 양조장 (주)청산녹수(대표 김진만)’의 ‘사미인주’를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 사미인주는 장성에서 생산된 친환경쌀과 직접 띄운 전통누룩으로 정성스럽게 빚어 저온 숙성을 거친 국내 1세대 프리미엄 막걸리다. 인공감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국내산 천연벌꿀과 사과 농축액을 더해 싱그러운 과일향과 산뜻한 풍미를 자랑한다.
- 송강 정철의 가사(歌詞) ‘사미인곡(思美人曲)’을 모티브로 해 ‘님에 대한 그리움은 어떤 맛일까?’ 하는 상상을 막걸리의 맛과 향기로 표현했다.
-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사미인주는 소중한 사람과 함께 마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빚은 전통주”라며 “특히 가정의 달인 5월에 가장 소중한 사람인 가족과 함께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 ‘사미인주’ 소비자 판매 가격은 750mℓ/ac1.8% 1병 기준 5천 원이다.
- 전화(061-393-4141)나, 전통주 전문쇼핑몰인 술팜닷컴 (<http://www.soolfarm.com>)을 통해 구입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 추진 가속도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 신설 협의 신청-

- 전라남도는 민선7기 김영록 도지사 핵심 공약인 '(가칭)전남형 농어민 공익 수당'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로의 신설 협의를 정식 신청했다고 밝혔다.
-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에는 지자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토록 돼 있다.
- 전라남도의 이번 협의 신청에 따라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처리하게 된다. 이르면 6월 말께 협의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 협의 절차는 2018년부터 '부동의'가 없어지고 '협의완료'나 '재협의(협의성립 또는 조정)', '반려(협의 대상이 아닌 경우)'로 변경됐다. 전라남도는 협의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 또한 전라남도가 모든 시군을 포괄해 협의 신청을 해 일괄 협의한 것으로 의제처리되는 만큼, 도의 협의가 시군까지 영향을 미쳐 시군 단위로 개별 협의를 할 필요가 없다.
- 전라남도가 신청한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은 농어업의 공익적다원적 기능 촉진과 지속가능한 농어업 보장을 위해 2020년 1월부터 전남 모든 시군의 농어업인에게 일정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 우수 농수축산식품, 우체국쇼핑몰로 판매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한국우편사업진흥원과 판로 지원 협약-

- (재)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정영준)는 29일 한국우편사업진흥원(원장 임정수)과 전남 우수 농수축산식품 및 창업기업 제품의 판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협약에 따라 전남 우수 농수축산식품 기업은 안정적 납품처와 온라인 유통망을 확보하게 됐다. 앞으로 우체국쇼핑몰을 통한 판매고 증대가 기대된다.
- 두 기관은 전라남도 농수축산식품 우수상품 선발 및 제안, 판로 및 마케팅·판매 촉진, 제품 입점 및 물류 매출 집계, 기타 각종 사업 추진 및 지원 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우편진흥원 산하 우체국쇼핑은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공공 온라인 쇼핑몰이다. 1986년 농수축산물 수입 개방으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지역 경제 활성화 및 판로 개척을 위한 공익 목적으로 설립됐다.
-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2015년 6월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수상품 품평·상담회 7회, 찾아가는 품평·상담회 16회, 전국혁신센터 공동 소싱박람회 5회, 총 28회 판로 지원행사를 진행했다.
- 품평회를 통해 총 198개사에 1천238억 원의 판로지원 성과를 창출했다. 특히 (주)강순의명가 ‘김치세트’(매출액 341억), 해남고구마식품 ‘반시꿀고구마’(매출액 94.9억), (주)아라움 ‘크리스피치킨’(매출액 44.1억) 등은 GS 유통사에 입점해 많은 성과를 거두며 히트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도, 가축 방역시책 전국 최우수

-농식품부 평가...도지사 방역 의지농가 협력으로 구제역AI 비발생 호평-

-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가축방역시책평가에서 영예의 '최우수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 이번 평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구제역AI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전국 17개 시도가 펼친 방역시책에 대해 이뤄졌다. 1차 서류와 증빙자료 심사, 2차 현장 프레젠테이션 발표로 진행됐다.
- 전라남도는 동물방역과 이경란 주무관이 '도지사와 함께! 축산농가와 함께!, 6년만에 구제역AI 동시 청정 달성'이란 주제로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프레젠테이션에서 김영록 도지사의 가축 방역에 대한 큰 관심과 강력한 의지, 구제역AI 방역 독려를 위한 영상회의 주재와 휴일 없는 방역현장 점검, 통 큰 결단으로 차단방역 비용 80억 원 지원 등의 방역활동을 발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 여기에 오리 농가 등 400여 명이 AI 차단방역 실천 결의대회 개최로 농가 방역의식 고취, 자체 AI 연구용역 발표 및 전 오리농가 AI 생석회 차단방역벨트 설치, 발생 위험이 높은 오리농장에 방역초소 설치, 전국 최초 구제역 방역대책 5개년계획 수립 및 백신 100% 지원 사례도 심사위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출처 : 전라남도



전남농기원, 목이버섯 조리법과 재배기술 담은 책자

- 조리법 34종, 재배기술 화보와 함께 기술 -

- 전라남도농업기술원(원장 김성일)은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목이버섯 조리법과 재배기술을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다.
- 이 책자는 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농업인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리법 34종과 재배기술을 화보와 함께 기술한 목이버섯 지침서이다.
- 조리법에는 밥과 면, 구이와 전, 찜과 선, 샌드위치, 떡과 베이커리, 별미음식 등으로 구분하였다.
- 또한 재배기술에는 목이버섯의 영양성분, 생리활성과 효능, 생육주기, 손질법, 품종 육성 현황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 목이버섯은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건강기능성식품이며 체내 미세먼지를 흡착하여 배출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비타민D2, 칼슘, 단백질, 탄수화물 등 영양이 풍부하다. 이처럼 영양과 기능만점 버섯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음식에만 들어가는 식재료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 전남농기원은 지난 2011년부터 전국 최초로 목이버섯 신품종을 개발하여 국내에 보급하고 있으며 목이버섯의 영양성과 기능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 책을 발간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특히 광주광역시 관내 초중고교 급식관계자를 대상으로 배포하였으며 각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농업인에게 배부하였다. 또한 전라남도농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출처 : 전라남도농업기술원



농촌진흥청, 농가 대상 소득연계 상담 지원 나서

- 전문가 현장 상담... 포장재 개선, 판매 마케팅 등 어려움 해결 기대 -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시범사업 참여했던 농가 중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대상으로 '희망드림 컨설팅'에 나선다.
- 희망드림 컨설팅은 신기술 시범사업에 참여한 농가를 대상으로 제품 판매에 도움이 되는 포장재 개선, 판매 마케팅 등 소득연계 컨설팅으로 201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 이번 컨설팅 대상은 2017~2019년 진행된 105개 시범사업 참여 농가 중 농업생물 분야 9곳, 농식품 분야 7곳, 농촌자원 분야 2곳 등 총 20곳으로, 전문가의 현장 상담, 우수사례 공유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연 1회 종합(One-stop) 컨설팅을 통해 농가가 당면한 현안 문제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조언이 이뤄진다.
- 또한 연 2~3회 단계별(Step by step) 컨설팅으로 소득이 창출되기까지 깊이 있는 기술 지원을 돕는다.
- 농촌진흥청은 현재 효율적인 컨설팅을 위해 식품가공 25명, 경영·회계·유통 분야 20명 등 총 137명의 분야별 전문가 군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전문가를 모집할 계획이다.
- 이번 컨설팅은 지난 18일 장수 농특산물전시판매 문화공간 조성 시범사업 참여 농가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진행된다.

*출처 : 농촌진흥청



전남도, 올해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

-대상 해남 한눈에반한쌀최우수 담양 대숲맑은쌀 등 영예-

- 전라남도는 소비자 수요에 부응하는 전국 최고의 명품쌀 생산·유통 활성화를 위해 해남 한눈에반한쌀과 담양 대숲맑은쌀 등 ‘올해의 전남 10대 고품질 브랜드 쌀’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 전남쌀 10대 고품질 브랜드쌀 선정은 한국식품연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쌀 관련 5개 전문기관의 평가로 이뤄졌다.
- 평가 결과 대상에 해남 한눈에반한쌀, 최우수상에 담양 대숲맑은쌀, 우수상에 영암 달마지쌀골드·함평 나비쌀·영광 사계절이사는집, 장려상에 보성 녹차미인쌀·순천 나누우리·강진 프리미엄호평·무안 황토랑쌀·화순 자연속에순미쌀이 선정됐다.
- 이들 브랜드쌀은 생산·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철저한 관리를 통해 상품을 차별화한 것으로 평가받았다.
- 특히 품종 순도 100%가 9개 브랜드에서 나타날 정도로 예년에 비해 품질이 향상됐다. 평가위원들은 “브랜드 쌀의 품질, 식미점수가 상향 평준화됐다”고 분석했다.
- 전라남도는 오는 6월 10대 브랜드쌀을 시상하고, 브랜드쌀의 판촉 및 품질 개선 등을 위해 홍보, 마케팅 사업비로 총 1억 5천만 원의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출처 : 전라남도



담양 명품 ‘대숲맑은 담양 쌀’ 조기햅쌀 모내기.. 본격 영농철 시작

- 지난 25일 담양군 봉산면 삼지리에 위치한 대숲맑은 조기햅쌀 생산단지에서 ‘전남1호’ 품종으로 5.9ha 전 면적에 모내기를 진행했다.
- 담양군은 총 57ha의 면적에서 조기햅쌀을 재배하고 있으며, 추석 전 수확한 햅쌀은 소포장 단위 가공을 거쳐 전국의 소비자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출처 : 담양군



순천시,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료식 성황리에 마쳐

- 순천시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료식 -

- 순천시는 지난 23일 미생물친환경농업교육관(승주읍 소재)에서 2019년 상반기 미생물활용 발효식품제조 기술교육 수료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7일까지 실시된 이번 교육은 기초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뉘어 과정별 주1회씩 진행했다. 와인, 식초를 만들기 위한 기초 이론과 각자의 농산물을 이용한 실습을 병행해 교육 수료 후에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 특히 순천에서 생산되는 매실, 꾸지뽕, 블루베리 등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서 자기만의 와인과 식초를 만드는 실습은 교육생들의 선호도가 높아 우리지역 농산물의 다양한 활용법을 발굴하고 향후 농업의 6차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료식은 그동안의 교육내용을 정리하고 수료증 수여와 소감 발표, 교육생 실습작품 전시와 시음 등으로 진행됐으며, 각자 제조한 와인과 식초를 시음하면서 발효조건에 따른 맛과 향, 투명도 등의 차이를 논하기도 했다.



*출처 : 순천시



곡성군, 발효식품 제조 노하우 배우러 현장 견학

- 곡성명품농업대학 발효식품반, 화순보성으로 현장견학 실시 -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5월 1일 제9기 곡성명품농업대학 발효식품반 교육생 30명을 대상으로 화순군 발효삼매경과 보성군 우리원으로 현장견학을 실시했다.
- 참가자들은 발효식품 제조와 관련해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연찬했다.
- 화순 발효삼매경에서 천연식초 및 발효식품 제조과정에 대한 노하우를 배웠고, 보성 우리원에서는 유기 농업과 유기 가공에 대해 교육을 받았다.
- 특히 유기 토양에서의 농작물 재배방법과 발효 효소액의 이용 및 효능에 대한 강의는 많은 교육생들이 앞다퉈 질의할 만큼 큰 호응을 얻었다.
- 제9기 곡성명품농업대학 발효식품반 이옥선 회장은 “더 맛있고 건강한 발효식품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 지 현장에서 정확하게 알게 된 시간이었다.”며 현장견학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냈다.



*출처 : 곡성군



고흥군, 전국 지자체 최초「한우 송아지브랜드 출범식」개최

- 한우 송아지 브랜드 일반 송아지보다 120만 원 높은 543만 원에 낙찰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4월 29일 고흥축협 가축시장에서 한·미 등 FTA 체결로 쇠고기 수입증가 및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워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최초 한우 송아지브랜드 사업을 추진하고 출범식 가졌다.
- 한우 송아지브랜드 육성사업은 중앙정부에서 시행한 사업으로 한국종축개량협회에 등록된 우량 암소에서 생산한 송아지를 선발기준을 통해 면밀히 심사하고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여 고흥의 대표브랜드인「유자골 고흥한우」명성을 드높여 관내 한우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이다.
- 본 사업은 총 사업비 9억 원(국비345백만 원, 군비555백만 원)을 들여 추진 중에 있으며, 우량 암소(혈통등록우 이상)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고흥축협에서 대행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 사업 내용으로는 가축개량(선형심사, 능력검사), 전산 D/B 구축, 유전자 검사, 고능력 정액 공급, 송아지브랜드 관리 등 사업으로 추진된다.
- 한우 송아지브랜드 선발은 축협과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 혈통등록된 암소 중 D/B를 통해 우량 암소를 선발하고, 고능력 정액을 공급하여 생산된 송아지를 친자확인 등을 거쳐 최종「유자골 고흥한우 브랜드」로 경매시장을 통해 공급하는 체계이다.

- 한편, 한우 송아지브랜드 첫 전자경매 시장에는 브랜드송아지 57마리가 출품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송아지 가격보다 120만 원 높은 최고가 543만원에 낙찰되어 출범식장의 열기가 뜨거웠다.
- 군 관계자는 “고흥군은 전국 최고의 한우 등록율과 우량암소를 보유하고 있어 우수한 한우를 집중 개량하여 고능력 축군으로 조성하고, 생산된 우량 송아지는 브랜드화 하는 등 유자골 고흥한우 명품화를 통한 한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한우 농가에서도 지속적으로 품질 경쟁력 확보는 물론 위생·안전성까지 높여 유자골 고흥한우 차별화에 앞장서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 고흥군



고흥군, 2019년 농작물재해보험 자부담 비율 인하

- 농가 자부담 비율 20%에서 10%로 감소 -

-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태풍과 병충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 농가 부담률을 10% 축소한다고 밝혔다.
- 농작물 재해보험은 농림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 벼를 비롯한 밭작물, 과수, 시설원예 등 농작물과 농업용 시설물·시설작물에 대해 농지별로 가입할 수 있다.
- 대표적으로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벼의 경우 피해를 입었을 때 수확량 감소분을 확인하여 감소한 수확량만큼 보상을 받는 등 농작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 재해보험 재원 비율은 보조 80%, 자부담 20%이나 고흥군에서는 농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10%를 군비로 추가 지원하여 농가부담률을 20%에서 10%로 최소화하였다.
- 이는 민선7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고흥군은 많은 농업인들이 재해보험에 모든 필지를 가입하여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고 있다.
- 군 관계자는 “최근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가운데 농업인들이 각종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업인들이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이와 같은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출처 : 고흥군



해남군, 농민수당 6월 전국 최초 지급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 이행 완료, 10일까지 신청접수 -

- 해남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진행이 완료됨에 따라 모든 법적절차를 마치고, 오는 6월 전국 최초 농민수당 지급을 시행하게 된다.
- 이에 따른 농민수당 지급 신청을 오는 5월 10일까지 접수받는다.
- 해남군 농민수당의 지급대상은 신청연도의 직전 1년 이상 해남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 농업경영체로서 실제 경작 또는 사육하고 있는 농업인이다. 지급방식은 지역상품권인 해남사랑상품권으로 연 60만 원(반기별 30만 원) 균등 지원하게 된다.
- 농민수당 지급은 상반기 6월, 하반기는 8~9월 중 실시될 예정이다.
- 농민수당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논·밭 독 등 농지 형상 유지,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등 기본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또한 신청 전년도에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인 사람, 신청 전년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신청 전년도 농지·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 명현관 해남군수는 “해남군이 최초로 도입한 농민수당은 농업의 가치를 지키는 혁신적인 제도로 많은 관심을 받으며,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차질없는 추진으로 농민수당이 조기에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출처 : 해남군



함평군, 농기계임대사업장 본점 오는 27일부터 토요일 연장 운영

- 함평군(군수 이윤행)이 오는 27일부터 6월 29일까지 총 2개월간 농기계임대사업장 본점을 토요일까지 연장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 이번 연장운영은 농번기 농업인에 영농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 이에 따라 지역 농가는 토요일에도 함평군 농업기술센터 내 위치한 농기계임대사업장 본점을 통해 콩 파종기, 논두렁제초기, 보행관리기, 퇴비살포기 등 농기계 53종 168대를 임대할 수 있게 됐다.
- 임대기간은 기종별 최대 3일이며, 사전에 전화(☎ 061-320-2502)를 통해 임대 가능한 농기계를 확인할 수 있다.
- 임대료는 기종에 따라 1일 기준 1,000원~149,000원이다.
- 박은하 농업기술센터 영농지원과장은 “농기계임대사업장 토요일 연장운영에 대해 지역 농업인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며, “농가 소득향상과 경영비 절감을 위해 가을 수확철에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 : 함평군(농업기술센터)



영광군,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한 떡 가공업체 워크숍 성료

-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지난 4월 24~25일 전남 여수 디오션리조트에서 영광모싯잎송편 지리적표시 활성화를 위한 떡 가공업체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 이번 워크숍은 영광모싯잎송편이 지리적표시제 104호에 등록됨에 따라 지리적표시품 활성화 및 품질관리를 위한 방안 모색과 관내 떡 가공업체 간 유대감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었으며 마인드 노크, 지리적표시 관리, 직거래 마케팅 성공전략, 고객응대 기법과 매너 등 공감할 수 있는 참여식 교육으로 큰 호응을 얻었다.
- 또한 (사)영광에서모싯잎떡을만드는사람들 회원 자체적으로 지리적표시품 활성화를 위한 홍보, 품질 및 사후관리 방안, 업체 간 협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 영광모싯잎송편이 계속해서 지역의 명품특산품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주인의식을 갖는 기회가 되었다.
- 워크숍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업체 간 소통으로 유대감을 강화할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고 영광모싯잎송편의 지리적표시 품질관리와 명품화에 앞장서 우리 군 떡산업 활성화에 이바지 하겠다.”고 말했다.
-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지리적표시제는 사후관리가 특히 중요하다”고 밝히면서 “모싯잎 뿐만 아니라 쌀, 동부, 천일염 또한 ‘영광산’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철저한 원재료관리 및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출처 : 영광군



장성군, '농작물재해보험'으로 안심하고 농사짓는다

- 재해보험료 85% 확대 지원으로 농업인 부담 완화...벼는 6월28일까지 가입 -

- 장성군이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을 확대하여 재해보험 가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장성군은 올해 군비 5억9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당초 20%였던 농가의 보험료 자부담 비율을 15%로 대폭 낮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재해보험 가입을 적극 독려 하고 있다.
-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은 오는 6월 28일까지이며,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해충, 재이앙, 재직파, 수확 감소에서 오는 피해를 보상한다. 이 중 모내기 및 벼씨를 직접 파종하지 못하는 직파 불능 피해를 보장받으려면 이달 10일 이내에 가입해야 한다.
- 특히, 특약가입 시 지난해까지 보장되던 6종의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 도열병, 깨씨무늬병, 먹노린재)에 최근 많이 발생하는 세균성벼알마름병 보장을 추가해 모두 7종의 병충해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 보험료는 재배방식과 자기부담비율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장성군은 660㎡(1마지기)에 평균 700원을 기준으로 100마지기 벼농사를 짓는다고 가정할 때 농가가 실제 부담하는 보험료는 대략 7만 원이다. 보험가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후 가까운 지역농협을 방문하면 된다.

*출처 : 장성군



한국파프리카의 일본 수입항구 현황

- 한국산 파프리카 최대 수출시장은 일본 -

- 2018년 기준 한국산 파프리카 전체 수출규모는 31.9천 톤 92.3백 만불이며 이중 대일본 수출은 약 99%를 차지(31.7천 톤, 91.8백 만불) 하는 등 한국산 파프리카의 대부분이 일본으로 수출된다.

- 파프리카의 주요 수입항구에 대해 -

- 한국산 파프리카의 주로 수입되는 항구를 살펴보면 시모노세키항(야마구치현)이 68.9%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서 오사카항(오사카부) 17.9% 하카타항(후쿠오카현) 7.1%, 도쿄항(도쿄도) 2.3%, 사카이센보쿠(오사카현) 1.9%, 사카이항(돗토리현) 1.7%순으로 나타났다.
- 시모노세키항의 경우 2000년 점유율이 약 90%를 차지하다가 증감을 반복, 전체적으로 반입률이 감소추세이다.
- 시모노세키항 : ('00) 89.5% → ('05) 62.5% → ('10) 77.5% → ('16) 70% → ('17) 67.3% → ('18) 68.9%
- 반입률 감소 이유로는 수입항이 과거 시모노세키, 오사카, 하타타항에서 최근 사카이센보쿠, 사카이항 등으로 다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 각 항구별 한국산 파프리카 수입단가를 살펴보면 평균단가는 333엔/kg으로 나타났으며, 시모노세키가 332엔, 오사카 328, 하카타 344, 동경 372, 사카이센보쿠 319, 사카이 333으로 동경항 반입 파프리카 단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송거리에 따른 물류비의 영향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 경쟁국(네덜란드, 뉴질랜드) 파프리카 수입현황 -

- 일본 파프리카의 수입시장에서 한국산이 78.3%를 점유하고 있으나 네덜란드가 13.7%, 뉴질랜드가 7.7%를 차지하고 있다.
- 네덜란드의 경우 전량 항공편으로 수입이 되고 있으며, 뉴질랜드의 경우 대부분이 항공편이나 일부 동경항으로 반입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시사점 -

- 최근 대부분의 일본 슈퍼마켓에서는 한국산 파프리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인지도가 높다. 그만큼 가격·품질 경쟁력이 우수하고 바이어와 소비자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 있다.
- 이러한 한국산 파프리카가 일본의 어떤 항구로 주로 수입이 되는지 파악 해 보는 것도 수출업체와 생산농가에 참고가 될 만한 내용이라 판단된다.

* 출처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농수산물수출지원정보



해외 곡물시장 일일동향 ('19. 05. 07. 시카고 선물거래소)

- 주요 곡물 선물 가격, 도널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 계획을 발표한 뒤 하락 -

- 밀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0.2% 하락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인상을 발표한 이후 시카고 거래소의 밀 선물가격은 기술 매도 및 시장압력에 직면했다. 미국 농무부는 월요일 주간 밀 수출량은 47만7,918톤으로 일주일 전의 63만402톤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 옥수수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8% 하락했다. 지난 주 비가 미국 중서부 지역의 파종을 방해하면서 반등했던 시카고상품거래소 옥수수 선물은 월요일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미 농무부는 월요일 주간 옥수수 수출 판매량은 97만6,842톤으로 1주일 전의 136만6,477톤보다 감소했다고 밝혔다.
- 대두 선물가격은 전일 대비 1.4% 하락했다. 대두 선물가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주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이후 가장 활발한 거래된 Sv1 계약은 거의 8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했다. 미 농무부는 월요일 대두의 주간 수출량은 60만441톤으로 1주일 전의 50만7,285톤보다 증가했다고 밝혔다.



* 출처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해외곡물시장정보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KAMIS농산물 유통정보 (www.kamis.or.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서는 가격정보, 동향/전망, 식재료아카이브, 알뜰장보기, 유통실태, 자료실, 고객센터로 분류되어 있으며,
- 가격정보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도·소매가격, 가격정보 조사요령, 부가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도매가격은 품목·기간·부류별로 기간 > 지역 > 부류 > 품목 > 품종 > 등급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소매가격은 품목·기간·부류·시장·친환경농산물별로 기간 > 부류 > 품목 > 품종 > 등급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부가정보는 주요 농산물 일일 도매가격, 산지가격, 경락가격, 가격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도매 가격(중도매인 판매가격)

식품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수산물
품목	단위	가격(03.05)	동락률	전일
양파/일반계	20kg	49,380	-	49,380
감/일반계	40kg	135,600	-	135,600
감/매대(국산)	35kg	184,600	-	184,600
감/적두(국산)	40kg	452,200	-	452,200
녹두/국산	40kg	400,200	-	400,200

소매 가격

식품작물	채소류	특용작물	과일류	수산물
양파/일반계	20kg	53,200	0.1%	53,174
감/일반계	1kg	4,954	-	4,954
감/매대(국산)	500g	4,798	-	4,798
감/적두(국산)	500g	8,584	-	8,584
녹두/국산	500g	6,923	-	6,9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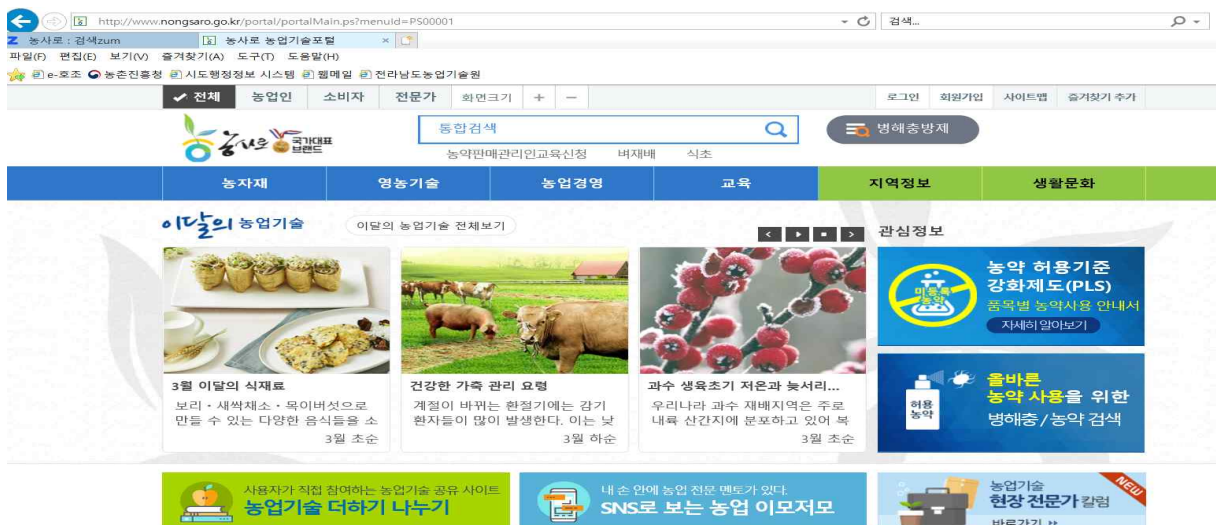
주간 알뜰장보기

식재료 아카이브



농촌진흥청 농사로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농촌진흥청 농사로(www.nongsaro.go.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농사로에서는 농자재, 영농기술, 농업경영, 교육, 지역정보, 생활문화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경영에서는 농산물소득정보, 우수사례, 농식품소비트렌드, 경영기술, 농축산물가격, 경제성분석기준자료, 농가경영관리프로그램, 관측정보, 농식품산업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농축산물가격은 실시간가격, 기관조사가격, 해외농산물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 실시간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도매시장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기관조사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가락시장, 강서시장, 품목별가격, 지역별가격, 유통센터별가격 중 기준일시점으로 부류 > 품목 > 품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 해외농산물가격은 기준일 시점으로 부류 > 품목 > 품종을 선택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

- 농사에 필요한 가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농업관측본부(www.aglook.krei.re.kr)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본부에서는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부소개, 농업전망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 농업관측에서는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버섯, 관측속보별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가격동향, 출하전망, 가격전망, 정식의향을 확인할 수 있다.
- 품목동향에서는 가격&반입량, 도매가격동향을 확인할 수 있다.
 - 가격&반입량은 엽근채소, 양념채소, 과일, 과채, 축산, 곡물, 국제곡물, 버섯으로 분류되어 각 품목별로 최근 3개월 간의 거래가격 및 반입량 추세(가락도매시장)를 그래프와 가락동 도매시장 최근 10일간 도매가격 및 반입량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 도매가격동향은 일자를 선택하여 품목별로 가격과 등락률(%)을 표로 확인할 수 있다.

KREI 농업관측본부

농업관측 관측연구 발간물 품목동향 소비정보 알림광장 본부소개 농업전망

01 농업관측정보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 분석 후, 전문가들이 지문을 받아 작성된 것입니다.

02 품목동향

03 농업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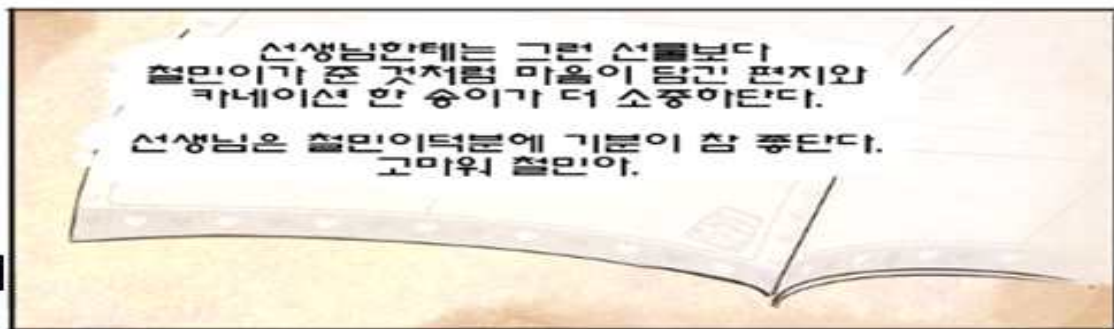
도매가격동향 | 2019-03-09

품목	가격		전일대비 등락률(%)
	전일	당일	
당근	18,423	18,231	▲ 1.0
양파	644	662	▲ 2.8
대파(일반)	1,001	794	▲ 20.7
쪽파	17,604	18,618	▲ 5.8
느타리버섯	4,689	4,693	▲ 0.1



청렴한세상 - 봉투 속에 담긴 소중한 선물(2)





주간 233호에 계속 연재됩니다.

* 출처 : 국민권익위원회

주간 VOL. 232 전남농업

전라남도농업기술원 자원경영과

85213 전라남도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508

Tel. 061)330-2592 Fax. 061)335-4199

